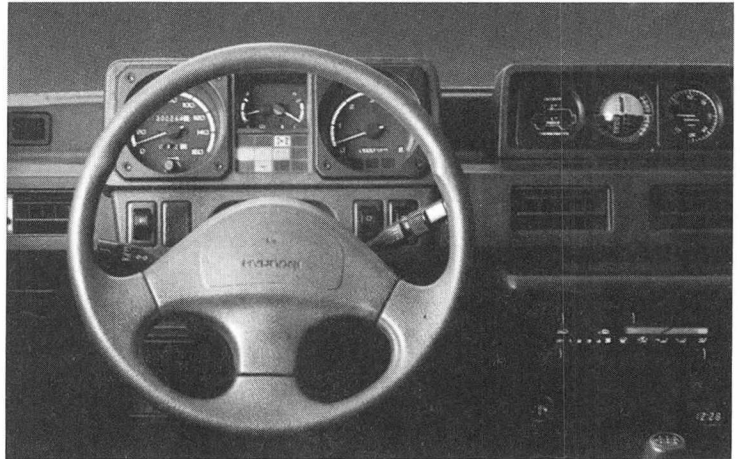


## 여름철 차량 관리 요령

그늘 하나 없는 여름철 대로변을 걸어 보자. 바닥의 지열과 뜨거운 태양열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흘리게 하고, 너무 많은 땀을 흘리다 보면 일사병에 걸리는 수도 있다. 차량이라고 예외가 아니어서 조그만 무관심이나 부주의, 무리한 운행을 하다 보면 차도 더위(?)를 먹어 뜻밖의 곤경에 처하게 된다. 여름철에 자동차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자.



### ○오버히트

엔진이 과열되어 오버히트되는 대부분의 원인이 냉각수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며, 나머지는 팬 벨트의 손상, 워터 펌프 및 서머 스탠트의 작동 불량을 들 수 있다.

수온계의 바늘이 고온을 가리킬 경우에는 냉각수 부족이 원인이므로 차를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냉각수가 어느 정도 있다면 시동을 끄지 말고 2~3분 정도 계속 공회전시켜 냉각수의 순환이 잘되고 냉각 팬이 작동되어 엔진 온도를 떨어뜨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기계과열이 아니고 고무 호스의 파열이나 냉각수가 부족하다면 재빨리 시동을 꺼 엔진이 멈추게 한 후 호스를 교환한 다음 냉각수를 보충하면 된다.

만약 팬 벨트와 냉각수가 정상인데 수온계가 자꾸 올라갈 경우

에는 워터 펌프와 서머 스탠트에 이상이 있거나 라디에이터에 불순물이 혼입되어 냉각수의 순환 통로가 막힌 경우이므로 정비공장에서 수리받도록 한다.

### ○베이퍼 록 현상

기온이 높은 날 차를 운전하다 보면 카뷰레터에 있는 휘발유가 지열과 엔진열에 의해 혼합기가 지나치게 진해지면서 연료의 통로가 막혀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생긴다. 즉 연료 펌프 주변이 달아 오르면서 생긴 기포가 연료 파이프를 막아 휘발유가 공급되지 못해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 현상으로 연료 계통에서는 연료 공급이 중단되어 엔진이 꺼지고 브레이크에서는 브레이크 회로 속의 오일 통로가 증발되어 제

동력을 잃게 된다.

브레이크에 의한 베이퍼 록은 더운 여름날 긴 내리막길에서 무리하게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낮은 기어로 오랜 시간 주행할 때 자주 일어난다.

베이퍼 록이 생겼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완전히 밟고 스타팅 모터를 돌려 실린더를 건조시킨 다음, 카뷰레터 주위를 물에 적신 헝겊으로 덮어 열을 식히거나 차를 길 가장자리로 옮겨 통풍이 좋도록 본넷을 열어 놓아 엔진 룸을 식혀 준다.

엔진이 식은 다음 시동을 걸면 차는 다시 잘 달리게 된다.

### ○장마철 습기 대책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는 차량의 각종 소모성 부품에 신경을 써야 한다.

에어클리너 엘리먼트에 습기가 스며들면 필요한 만큼의 공기가 통과하지 못하므로 평상시보다 자주 갈아주고, 엔진 오일, 트랜스미션 오일, 리어 액슬 오일 등 각종 오일도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와이퍼 고무날과 세척액을 점검하여 두고, 물방울 부착 방지제도 준비하여 두면 좋다.

만약 운행중 벼락이 친다면 차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하며, 안테나를 세우지 말 것이며, 독립된 큰 나무 밑에 차를 세워두지 않도록 한다.

#### ○타이어의 펑크 또는 파스

여름철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타이어가 마찰을 일으켜 펑크가 나거나 심하면 아스팔트와의 마찰력을 이기지 못해 파스가 나기도 한다.

또한 짐이나 사람을 너무 많이 싣거나 쉬지 않고 계속 달릴 경우 더운 여름철에는 열을 받아 약화되고, 심한 경우 파손되어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적재량 및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장시간 연속 주행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차량 제조 회사에서 지정한 규정 공기압보다 약 10% 증가시켜 주어야 한다.

타이어에 펑크나 파스가 일어나면 당황한 나머지 곧바로 급브레

이크를 밟게 되는데 절대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안된다. 만약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달리던 관성과 타이어 펑크시 바퀴의 균형이 깨어져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날 수 있다. 따라서 펑크나 파스가 났을 때는 핸들을 단단히 잡고 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면서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고 기어 단수를 낮춰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가장 좋다.

#### ○에어컨 사용 요령

여름철 차량에 필수적인 시설이 에어컨이다.

카 에어컨은 자기의 차 배기량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에 무리하지 않도록 가동하여야 한다.

에어컨을 가동시킬 때는 시동을 건 후 바로 작동시키지 말고 5분 정도 아이들러를 시킨 후 작동시켜야 한다.

에어컨을 가동시킬 때는 컴퓨터서의 작동에 가해지는 힘을 엔진 출력에서 받게 되므로 엔진힘이 약해지고 연료가 더 소모되게 된다. 저단 기어를 반복해야 하는

시내 주행 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추월하거나 긴 언덕길을 오를 때는 엔진에 무리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연료 소모의 증가는 물론 엔진의 과열에 의한 오버히트의 우려가 있으므로 잠시 에어컨을 끄고 운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휴가철 차량 관리 요령

① 출발 1주일 전에는 팬 벨트의 손상과 장력 등을 점검하여 둔다.

② 라디에이터의 캡을 열어 보아 냉각수의 양을 확인하고, 리저브 탱크의 양도 점검한다.

③ 배터리 액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점검하여 부족하면 증류수를 보충하고, 터미널의 상태도 점검한다.

④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앞유리창용 세척수도 점검하여 교환하여 둔다.

⑤ 계기판의 각종 기기들의 작동 상태와 전조등·방향 지시등·비상경고등·브레이크등·후진등 따위의 조명장치를 점검한다.

⑥ 스페어 타이어를 점검하여 두고, 고속 주행시에는 평소보다 10~15% 정도의 공기를 더 넣어 스탠딩 웨이브 현상에 대비한다.

⑦ 예비 열쇠를 포함하여 기본 장비 외에도 비닐 물통·비닐 테이프·손전등·팬 벨트·퓨즈·전구·메모지·보험회사의 연락처·고장 차량 표지판 등을 휴대하도록 한다. 물론 제작 회사의 지역별 애프터 서비스 지점의 전화 번호도 알아 두도록 한다.

⑧ 특히 주유소가 없는 고속도로나 산간 지방에서 연료가 떨어질 경우에도 대비하여 출발 전에 연료는 반드시 가득 채우고 출발하여야 한다. ㉞

